

## 낙원천국 삼위일체

## THE PARADISE TRINITY

- 10:0.1 영원한 신(神)들의 낙원천국 삼위일체는 개인성 절대론으로부터의 아버지의 벗어남을 촉진시킨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의 무한 개인적 의지의 무제한적 표현을 신(神)의 절대성과 완전하게 연합시킨다. 영원 아들과 신성한 기원의 다양한 아들들은, 공동행위자 그리고 그의 우주 자녀들과 함께, 시원성, 완전, 무변, 영원, 보편성, 절대성, 그리고 무한성 안에 선천적인, 달리 말하면 한계들로부터의 아버지의 해방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 10:0.2 낙원천국 삼위일체는 신(神)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충분한 표현과 완전한 계시를 효력적으로 제공한다. 삼위일체 고정아들도 마찬가지로 신성한 공의(公義)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계시를 제공한다. 삼위일체는 신(神) 합일이며, 이 합일은, 기원적이고 합동적이며 공존하는 세 개인성들,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 그리고 영 하느님이 신성한 하나를 이루는 절대적 기초 위에 영원히 놓여 있다.
- 10:0.3 영원의 순환계에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끝없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주 관련사들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발견할 수
- THE Paradise Trinity of eternal Deities facilitates the Father's escape from personality absolutism. The Trinity perfectly associates the limitless expression of God's infinite personal will with the absoluteness of Deity. The Eternal Son and the various Sons of divine origin, together with the Conjoint Actor and his universe children, effectively provide for the Father's liberation from the limitations otherwise inherent in primacy, perfection, changelessness, eternity, universality, absoluteness, and infinity.
- The Paradise Trinity effectively provides for the full expression and perfect revelation of the eternal nature of Deity.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likewise afford a full and perfect revelation of divine justice. The Trinity is Deity unity, and this unity rests eternally upon the absolute foundations of the divine oneness of the three original and co-ordinate and coexistent personalities,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Spirit.
- From the present situation on the circle of eternity, looking backward into the endless past, we can discover only one inescapable inevitability in universe affairs, and that is the

있으며, 그것이 낙원천국 삼위일체이다. 나는 삼위일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외의 어떤 것도 우주들의 우주 전체 안에서 필연적이어야만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되돌아보거나 앞을 내다 볼 때, 현재의 주(主)우주는 삼위일체 없이 생각될 수 없다. 낙원천국 삼위일체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만물을 행하는 교차적 또는 복합적 방법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의 삼위일체 없이는, 신(神)의 절대적 하나 됨 앞에서 무한자가 어떻게 삼중(三重)의 그리고 합동의 개인성구현을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창조에 대한 어떤 다른 개념도, 신(神)의 삼중적 개인성구현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의지적 해방의 충만함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신(神) 합일 안에 선천적인 절대성의 완벽함에 대한 삼위일체 표준들에 들어맞지 않는다.

### 1.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자아-분배

10:1.1 영원 안에서 되돌아가면, 아버지가 심오한 자아-분배의 원칙을 개시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주 아버지의 사심이 없고,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본성 안에는, 그가 증여하거나 위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발견한 오직 그 힘들과 그 권한에 대해서만 자신을 그 실행으로 남겨두는 그

Paradise Trinity. I deem the Trinity to have been inevitable. As I view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ime, I consider nothing else in all the universe of universes to have been inevitable. The present master universe, viewed in retrospect or in prospect, is unthinkable without the Trinity. Given the Paradise Trinity, we can postulate alternate or even multiple ways of doing all things, but without the Trinity of Father, Son, and Spirit we are unable to conceive how the Infinite could achieve threefold and co-ordinate personalization in the face of the absolute oneness of Deity. No other concept of creation measures up to the Trinity standards of the completeness of the absoluteness inherent in Deity unity coupled with the repleteness of volitional liberation inherent in the threefold personalization of Deity.

### 1. SELF-DISTRIBUTION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t would seem that the Father, back in eternity, inaugurated a policy of profound self-distribution. There is inherent in the selfless, loving, and lovable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something which causes him to reserve to himself the exercise of only those powers and that authority which he apparently finds it impossible to delegate or to bestow.

어떤 것들이 선천적으로 있다.

10:1.2 우주 아버지는 모든 다른 창조주 또는 창조체에게 증여될 수 있었던 자신의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자신으로부터 벗어버렸다. 그는 위임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한을 자신의 신성한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연합된 지능체들에게 위임해 왔다. 그는 건네줄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의 모든 특권을, 그의 주권자 아들들에게, 그들의 각 우주들 안으로, 실제적으로 건네주었다. 지역우주의 일들에 있어서, 그는 영원 아들이 기원적인 그리고 중앙에 있는 우주 안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창조주 아들 각각을 완전하고 유능하며 권위 있게 만들어 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자기 속성 전체를, 모든 방법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중앙 내주를 제외한 모든 우주에서 그가 자신을 벗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개인성 소유의 존엄성과 거룩함과 함께 내어주었고, 실제적으로 증여하여 왔다.

10:1.3 신성한 개인성은 자아-중심적이 아니며; 자아-분배와 개인성의 나눔은 신성한 자유의지 자아신분을 특징짓는다. 창조체들은 다른 개인적 창조체들과 연합하기를 갈망하며; 창조주들은 그들의 우주 자녀들과 신성을 나누도록 감동되며; 무한자의 개인성은, 두 합동 개인성들, 영원

The Universal Father all along has divested himself of every part of himself that was bestowable on any other Creator or creature. He has delegated to his divine Sons and their associated intelligences every power and all authority that could be delegated. He has actually transferred to his Sovereign Sons, in their respective universes, every prerogativ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was transferable. In the affairs of a local universe, he has made each Sovereign Creator Son just as perfect, competent, and authoritative as is the Eternal Son in the original and central universe. He has given away, actually bestowed, with the dignity and sanctity of personality possession, all of himself and all of his attributes, everything he possibly could divest himself of, in every way, in every age, in every place, and to every person, and in every universe except that of his central indwelling.

Divine personality is not self-centered; self-distribution and sharing of personality characterize divine freewill selfhood. Creatures crave association with other personal creatures; Creators are moved to share divinity with their universe children; the personality of the Infinite is disclosed as the Universal Father, who shares reality of being and

아들과 공동행위자로서 존재의 실체성과 자아의 평등성을 나누어가지는, 우주 아버지로서 나타난다.

equality of self with two co-ordinate personalities, the Eternal Son and the Conjoint Actor.

10:1.4 아버지의 개인성과 신성한 속성들에 관한 지식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영원 아들의 계시에 의존할 것인데, 왜냐하면 창조의 공동 행위가 발효되었을 때, 신(神)의 셋째개인이 개인성 실재로 떠오르고 자신의 신성한 부모들에 대한 병합된 개념들을 실행하였을 때, 아버지는 분별불가 개인성으로서, 존재하기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공동행위자가 존재하게 되고 창조의 중앙 핵이 물질화됨에 따라, 어떤 영원한 변화들이 발생되었다. 하느님은 자신의 영원 아들에게 절대적 개인성으로서 자신을 주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무한성의 개인성”을 자신의 오직하나-낳은 아들에게 증여한 반면, 그 둘 모두는 무한 영에게 그들의 영원한 결합의 “공동 개인성”을 증여하였다.

For knowledge concerning the Father's personality and divine attributes we will always be dependent on the revelations of the Eternal Son, for when the conjoint act of creation was effected, when the Third Person of Deity sprang into personality existence and executed the combined concepts of his divine parents, the Father ceased to exist as the unqualified personality. With the coming into being of the Conjoint Actor and the materialization of the central core of creation, certain eternal changes took place. God gave himself as an absolute personality to his Eternal Son. Thus does the Father bestow the "personality of infinity" upon his only-begotten Son, while they both bestow the "conjoint personality" of their eternal union upon the Infinite Spirit.

10:1.5 유한 마음의 개념을 벗어나는 이들 그리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것이 영원 아들 안에서 우주적으로 계시되고, 아들과 함께 무한 영 안에서 우주적으로 활동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 창조체가 하느님의 무한한 아버지-개인성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For these and other reasons beyond the concept of the finite mind, it is exceedingly difficult for the human creature to comprehend God's infinite father-personality except as it is universally revealed in the Eternal Son and, with the Son, is universally active in the Infinite Spirit.

10:1.6 하느님의 낙원천국 아들들이 진화하는 세계들을 방문하고 때로는 심지어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여들이 필사 사람으로 하여금

Since the Paradise Sons of God visit the evolutionary worlds and sometimes even there dwell in the likeness of mortal flesh, and since these bestowals make it possible for

신성한 개인성의 본성과 성격 중 일부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행성 구체들의 창조체들은 이 낙원천국 아들들의 증여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관한 확실하고도 믿을만한 정보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mortal man actually to know something of the nature and character of divine personality, therefore must the creatures of the planetary spheres look to the bestowals of these Paradise Sons for reliable and trustworthy information regarding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 2. 신(神) 개인성구현

## 2. DEITY PERSONALIZATION

10:2.1 삼위일체화 기법에 의해, 아버지는 그 분별불가 영 개인성을 벗어버리어 그것이 아들이지만,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며 그리하여 창조되는, 결국 생겨나는, 또는 또 다른 지능적 의지 창조체들의 개인성구현 유형들의 신성한 아버지가 되기에 무제한적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절대적이고 분별불가의 개인성**으로서 아버지는, 오직 아들로서 또는 아들과 함께 기능할 수 있지만, **개인적 아버지**로서 그는 지능적 의지 창조체들의 서로 다른 차원의 다양한 무리에게 개인성을 계속 증여한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자녀 가족과 사랑하는 연합의 개인적 관계를 언제까지나 유지한다.

By the technique of trinitization the Father divests himself of that unqualified spirit personality which is the Son, but in so doing he constitutes himself the Father of this very Son and thereby possesses himself of unlimited capacity to become the divine Father of all subsequently created, eventuated, or other personalized types of intelligent will creatures. As the *absolute and unqualified personality* the Father can function only as and with the Son, but as a *personal Father* he continues to bestow personality upon the diverse hosts of the differing levels of intelligent will creatures, and he forever maintains personal relations of loving association with this vast family of universe children.

10:2.2 아버지가 자신의 충만함을 자기 아들의 개인성에게 증여한 후에, 자아-증여의 이 행위가 완성되고 완전할 때, 그리고 아버지-아들 결합 안에 그렇게 실재하는 무한 힘과 본성의, 영원한 동반자들은

After the Father has bestowed upon the personality of his Son the fullness of himself, and when this act of self-bestowal is complete and perfect, of the infinite power and nature which are thus existent in the Father-Son union, the eternal partners conjointly

자신들과 비슷한 다른 존재를 여전히 이루는 그 본질특성들과 속성들을 공동으로 증여한다; 그리고 이 공동 개인성, 무한 영은 신(神)의 존재적 개인성구현을 완성한다.

10:2.3 3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신분에 필요불가결하다. 영은 둘째와 셋째개인의 형제우애관계에 필요불가결하다. 세 개인이 사회집단의 최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동행위자의 필연성을 믿게 하는 많은 전체 이유들 중 가장 작은 것이다.

10:2.4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무한한 아버지-개인성, 무제한적 근원 개인성이다. 영원 아들은 분별불가 개인성-절대, 하나님의 개인적 본성의 완전한 계시로서 모든 시간과 영원에 두루 계시는 신성한 존재이다. 무한 영은 공동 개인성, 영속하는 아버지-아들 결합의 독특한 개인적 결과이다.

10:2.5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은 영원 아들의 절대 개인성을 뺀 무한성의 개인성이다.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개인성은 해방된 아버지-개인성과 절대 아들-개인성의 결합의 초(超)부가적 결과이다.

10:2.6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 그리고 무한 영은 독특한 개인성들이며; 아무도 중복되지 않으며; 각자가

bestow those qualities and attributes which constitute still another being like themselves; and this conjoint personality, the Infinite Spirit, completes the existential personalization of Deity.

The Son is indispensable to the fatherhood of God. The Spirit is indispensable to the fraternity of the Second and Third Persons. Three persons are a minimum social group, but this is least of all the many reasons for believing in the inevitability of the Conjoint Acto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infinite *father-personality*, the unlimited source personality. The Eternal Son is the unqualified *personality-absolute*, that divine being who stands throughout all time and eternity as the perfect revelation of the personal nature of God. The Infinite Spirit is the *conjoint personality*, the unique personal consequence of the everlasting Father-Son union.

The personal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is the personality of infinity minus the absolut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The personality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s the superadditive consequence of the union of the liberated Father-personality and the absolute Son-personality.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unique persons; none is a duplicate; each is original; all are united.

기원적이며; 모두 결합되어 있다.

10:2.7 영원 아들은 신성한 개인성 관계성의 충만함, 아버지와의 아들관계와 영에 대한 아버지 되심 둘 모두와 그리고 아버지-조상과 영-연합으로의 둘 모두의 신성한 평등성에 대한 의식(意識)을 홀로 체험한다. 아버지는 자신과 동등한 아들을 가지는 체험을 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떤 조상되는 선조도 없음을 안다. 영원 아들은 아들관계의 체험, 개인성 선조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동시에 아들은 무한 영에 대해 공동 부모가 됨을 의식한다. 무한 영은 이중적 개인성 선조를 인식한다, 그러나 합동 신(神) 개인성에 대해서 부모가 되지는 않는다. 신(神) 개인성구현의 존재적 주기는 영과 함께 완벽성을 달성하며;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1 차 개인성들은 체험적이고 숫자로서 일곱이다.

10:2.8 나는 낙원천국 삼위일체 안의 기원에 속한다. 나는 삼위일체를 합일된 신(神)으로 알고 있다; 또한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그들의 분명한 개인적 능력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함을 안다. 나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화 안에서 그들의 행위를 합동시키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이 일곱 개의 다른 단수적 그리고 복수적 능력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일곱 연합체들이 그러한 신성 조합을 위한 가능성을 다 소모함으로서, 우주의 실체들이

The Eternal Son alone experiences the fullness of divine personality relationship, consciousness of both sonship with the Father and paternity to the Spirit and of divine equality with both Father-ancestor and Spirit-associate. The Father knows the experience of having a Son who is his equal, but the Father knows no ancestral antecedents. The Eternal Son has the experience of sonship, recognition of personality ancestry, and at the same time the Son is conscious of being joint parent to the Infinite Spirit. The Infinite Spirit is conscious of twofold personality ancestry but is not parental to a coordinate Deity personality. With the Spirit the existential cycle of Deity personalization attains completion; the primary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re experiential and are seven in number.

I am of origin in the Paradise Trinity. I know the Trinity as unified Deity; I also know that the Father, Son, and Spirit exist and act in their definite personal capacities. I positively know that they not only act personally and collectively, but that they also coordinate their performances in various groupings, so that in the end they function in seven different singular and plural capacities. And since these seven associations exhaust the possibilities for such divinity combination, it is inevitable that the realities of the universe shall appear in seven variations of values, meanings, and personality.

가치, 의미 그리고 개인성의 일곱 변화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 3. 신(神)의 세 개인

10:3.1 오직 하나의 신(神)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神)의 세 가지 긍정적이고 신성한 개인성구현들이 존재한다. 신성한 조절자들을 받는 사람의 자질에 관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필사 사람을 만들자.” 복수(複數)의 신(神)의 활동들과 행위들에 대해 유란시아의 기록들에 두루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세 근원이며 중심들의 실재와 작업을 인식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0:3.2 우리는 아들과 영이 삼위일체 연합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동일하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배웠다. 영원 안에서 그리고 신(神)들로서 그들은 틀림없이 행하지만, 시간 안에서 그리고 개인성들로서는 그들이 매우 다양한 본성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낙원천국으로부터 우주들을 바라볼 때, 이 관계성들은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공간의 권역들로부터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들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10:3.3 신성한 아들들은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영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느님의 활동”이다. 하느님은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들과 함께 말씀하고

### 3. THE THREE PERSONS OF DEITY

Notwithstanding there is only one Deity, there are three positive and divine personalizations of Deity. Regarding the endowment of man with the divine Adjusters, the Father said: "Let us make mortal man in our own image." Repeatedly throughout the Urantian writings there occurs this reference to the acts and doings of plural Deity, clearly showing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and working of the three Sources and Centers.

We are taught that the Son and the Spirit sustain the same and equal relations to the Father in the Trinity association. In eternity and as Deities they undoubtedly do, but in time and as personalities they certainly disclose relationships of a very diverse nature. Looking from Paradise out on the universes, these relationships do seem to be very similar, but when viewed from the domains of space, they appear to be quite different.

The divine Sons are indeed the "Word of God," but the children of the Spirit are truly the "Act of God." God speaks through the Son and, with the Son, acts through the Infinite Spirit,

무한 영을 통하여 활동하는 반면,  
모든 우주 활동에 있어서 아들과 영은  
절묘하게 형제우애를 가지며,  
영광을 받고 신성하게 존경을 받는  
공동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갖는 동등한 두 형제로서 일한다.

10:3.4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본성에서  
분명하게 동등하고 존재에서  
합동을 이루지만, 그들의 우주  
행위에 있어서는 명백한 차이들이  
있으며, 홀로 활동할 때에는,  
신(神)의 각 개인이 절대성 안에서  
분명하게 제한된다.

10:3.5 우주 아버지는, 아들과 영을 구성하는  
개인성, 힘, 그리고 속성들에 대한  
자신의 자아-의지적 벗어버림  
이전에, 분별불가적, 절대적,  
무한적 신(神)이었던 것으로  
(철학적으로 고려할 때) 보인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러한 이론적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어떤 말의  
의미에서 보더라도 **우주 아버지**라고  
간주될 수 없다; 아버지신분은  
아들관계 없이는 실체가 아니다.  
더욱이, 전체적인 감각에 있어서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아버지는  
영원하게 먼 어떤 순간에 홀로  
존재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외롭게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아들과 영 둘 모두  
아버지와 함께 공동영원이다.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항상 기원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이며 아들과  
함께 무한 영의 영원한 선조였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이다.

while in all universe activities the Son  
and the Spirit are exquisitely fraternal,  
working as two equal brothers with  
admiration and love for an honored  
and divinely respected common  
Father.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certainly equal in nature, co-ordinate  
in being, but there are unmistakable  
differences in their universe  
performances, and when acting alone,  
each person of Deity is apparently  
limited in absoluteness.

The Universal Father, prior to his  
self-willed divestment of the  
personality, powers, and attributes  
which constitute the Son and the  
Spirit, seems to have been  
(philosophically considered) an  
unqualified, absolute, and infinite  
Deity. But such a theoretical First  
Source and Center without a Son  
could not in any sense of the word be  
considered the *Universal Father*;  
fatherhood is not real without sonship.  
Furthermore, the Father, to have been  
absolute in a total sense, must have  
existed at some eternally distant  
moment alone. But he never had such  
a solitary existence; the Son and the  
Spirit are both coeternal with the  
Father.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as always been, and will forever be,  
the eternal Father of the Original Son  
and, with the Son, the eternal  
progenitor of the Infinite Spirit.

10:3.6 우리는 아버지가 절대적 아버지신분과 절대적 의지를 제외한 절대성의 모든 직접적 현시들을 벗어버린 것을 관찰한다. 우리는 의지가 양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속성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그가 의지를 벗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의지의 무한성은 첫째근원이며 중심 안에 영원하게 선천적인 것이 분명하다.

We observe that the Father has divested himself of all direct manifestations of absoluteness except absolute fatherhood and absolute volition. We do not know whether volition is an inalienable attribute of the Father; we can only observe that he did *not* divest himself of volition. Such infinity of will must have been eternally inherent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10:3.7 개인성의 절대성을 영원 아들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는 개인성 절대론의 족쇄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로 하여금 개인성-절대자로서 홀로 활동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공존하는 신(神)—공동행위자—의 최종적 개인성구현으로, 절대에서의 신(神) 기능의 전체성과 관련된, 세 신성한 개인성들의 불가결한 삼위일체로서의 상호의존이 잇따라 일어난다.

In bestowing absoluteness of personality upon the Eternal Son, the Universal Father escapes from the fetters of personality absolutism, but in so doing he takes a step which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him to act alone as the personality-absolute. And with the final personalization of coexistent Deity -- the Conjoint Actor -- there ensues the critical trinitarian interdependence of the three divine personalities with regard to the totality of Deity function in absolute.

10:3.8 하느님은 우주들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개인성들의 아버지-절대자이다. 아버지는 행동에서의 해방에서는 개인성 절대이지만, 그러나 만들어진,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낙원천국 삼위일체를 제외하면 아버지는 전체 신(神)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절대가 아니다.

God is the Father-Absolute of all personalities in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Father is personally absolute in liberty of action, but in the universes of time and space, made, in the making, and yet to be made, the Father is not discernibly absolute as total Deity except in the Paradise Trinity.

10:3.9 첫째근원이며 중심은 하보나 밖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적 우주들 안에서

The First Source and Center functions outside of Havona in the phenomenal

가능 한다:

- 10:3.10 1. 창조자로서, 창조주 아들들, 그의 손자들을 통하여.
- 10:3.11 2. 조정자로서, 낙원천국의 중력 중심을 통하여.
- 10:3.12 3. 영으로서, 영원 아들을 통하여.
- 10:3.13 4. 마음으로서, 공동창조주를 통하여.
- 10:3.14 5. 아버지로서, 그는 자신의 개인성 순환회로를 통하여 모든 창조체들과 어버이의 접촉을 유지한다.
- 10:3.15 6. 한 개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배타적 단편으로—생각조절자들에 의해 필사 사람 안에—창조에 두루 직접적으로 활동한다.
- 10:3.16 7. 전체 신(神)으로서, 그는 오직 낙원천국 삼위일체 안에서 기능한다.
- 10:3.17 우주 아버지에 의한 관할권의 이 모든 양도와 위임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자아-부과된 것이다. 모든-힘을 지니신 아버지는 우주 권한의 이들 한계들을 의도적으로 떠맡는다.
- 10:3.18 영원 아들은, 하느님 단편들의 증여에서 그리고 다른 전(前)개인적 활동들을 제외하고, 모든 영적 관점에서 아버지와 하나로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은 물질적 창조체들의 지적 활동이나 물질적 우주들의 에너지 활동, 그 어느 것으로도 밀접하게 동일시되지 않는다. 절대일 때 아들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오직 영적 우주의 권역

universes as follows:

- 1. As creator, through the Creator Sons, his grandsons.
- 2. As controller, through the gravity center of Paradise.
- 3. As spirit, through the Eternal Son.
- 4. As mind, through the Conjoint Creator.
- 5. As a Father, he maintains parental contact with all creatures through his personality circuit.
- 6. As a person, he acts *directly* throughout creation by his exclusive fragments -- in mortal man by the Thought Adjusters.
- 7. As total Deity, he functions only in the Paradise Trinity.

All these relinquishments and delegations of jurisdiction by the Universal Father are wholly voluntary and self-imposed. The all-powerful Father purposefully assumes these limitations of universe authority.

The Eternal Son seems to function as one with the Father in all spiritual respects except in the bestowals of the God fragments and in other prepersonal activities. Neither is the Son closely identified with the intellectual activities of material creatures nor with the energy activities of the material universes. As absolute the Son functions as a person and only in the domain of the spiritual

안에서만 기능한다.

10:3.19 무한 영은 그의 모든 작용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우주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융통성이 있다. 그는 마음, 물질 그리고 영의 구체들 안에서 수행한다. 공동행위자는 아버지-아들 연합을 대표하지만, 그는 또한 자기 자신으로서 기능한다. 그는 물리적 중력, 영적 중력, 또는 개인성 순환회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지만, 모든 다른 우주 활동들 전체에 대체로 참여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 존재적이고 절대적 중력 조정에 종속적이지만 반면에, 무한 영은 세 초(超)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삼중적 자질은, 절대성의 초(超)궁극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1 차 기세와 에너지들의 현시조차도 초월하고 겉보기에 중성화 시키는 여러 방법에 종사되어 있다. 특정의 상황들에서 이 초(超)조정들은 조화우주 실체의 1 차 현시까지도 절대적으로 초월한다.

#### 4. 신(神)의 삼위일체 결합

10:4.1 모든 절대적 연합체들 중에서, 낙원천국 삼위일체(첫 번째 삼원일체)는 개인적 신(神)의 배타적 연합체로서 독특하다. 하느님은 하느님에 관해서만 그리고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하느님으로서 기능하지만, 오직 낙원천국 삼위일체 안에서만 그리고 우주 전체성과의 관련 안에서만 절대 신(神)으로 기능한다.

universe.

The Infinite Spirit is amazingly universal and unbelievably versatile in all his operations. He performs in the spheres of mind, matter, and spirit. The Conjoint Actor represents the Father-Son association, but he also functions as himself. He is not directly concerned with physical gravity, with spiritual gravity, or with the personality circuit, but he more or less participates in all other universe activities. While apparently dependent on three existential and absolute gravity controls, the Infinite Spirit appears to exercise three supercontrols. This threefold endowment is employed in many ways to transcend and seemingly to neutralize even the manifestations of primary forces and energies, right up to the superultimate borders of absoluteness. In certain situations these supercontrols absolutely transcend even the primal manifestations of cosmic reality.

#### 4. THE TRINITY UNION OF DEITY

Of all absolute associations, the Paradise Trinity (the first triunity) is unique as an exclusive association of personal Deity. God functions as God only in relation to God and to those who can know God, but as absolute Deity only in the Paradise Trinity and in relation to universe totality.

- 10:4.2 영원 신(神)은 완전하게 합일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神)의 완전하게 개별존재화된 세 개인들이 있다. 낙원천국 삼위일체는 첫째근원이며 중심과 그의 영원한 합동자들에 대한 그리고 나뉘지 않은 신(神)의 우주 기능들의 모든 신성한 합일에 대한 성격 특색들과 무한 힘들의 모든 다양성의 동시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 10:4.3 삼위일체는 비(非)개인적 능력 안에서의 무한 개인들 기능의 연합이지만 그러나 개인성의 위반은 아니다. 미숙한 예증이겠지만, 비(非)개인적이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인적 의지에 종속하는, 집합적 실존개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형성할 수 있다.
- 10:4.4 낙원천국 삼위일체는 **실제**이다. 그것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신(神) 결합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버지, 아들 또는 영, 또는 그들 중 어떤 둘도 이 바로 똑같은 낙원천국 삼위일체에 관련하여 기능할 수 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은 비(非)-삼위일체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신(神)들로서는 그렇지 않다. 개인들로서 그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협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 10:4.5 무한 영이 행하는 것은 공동행위자의 기능임을 항상 기억하라. 아버지와 아들 모두는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래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서 그리고 하나 안에서, 그리고 둘인 하나이면서
- Eternal Deity is perfectly unified; nevertheless there are three perfectly individualized persons of Deity. The Paradise Trinity makes possible the simultaneous expression of all the diversity of the character traits and infinite power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and his eternal co-ordinates and of all the divine unity of the universe functions of undivided Deity.
- The Trinity is an association of infinite persons functioning in a nonpersonal capacity but not in contravention of personality. The illustration is crude, but a father, son, and grandson could form a corporate entity which would be nonpersonal but nonetheless subject to their personal wills.
- The Paradise Trinity is *real*. It exists as the Deity union of Father, Son, and Spirit; yet the Father, the Son, or the Spirit, or any two of them, can function in relation to this selfsame Paradise Trinity. The Father, Son, and Spirit can collaborate in a non-Trinity manner, but not as three Deities. As persons they can collaborate as they choose, but that is not the Trinity.
- Ever remember that what the Infinite Spirit does is the function of the Conjoint Actor. Both the Father and the Son are functioning in and through and as him. But it would be futile to attempt to elucidate the

들을 위해 활동하는, 삼위일체 신비를 밝히려고 시도하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10:4.6 삼위일체는 그것이 모든 고립된 조화우주 결과 또는 개인성 관계성의 전체성을 설명하려는 우리 시도들 안에 고려될 정도로, 전체 우주 일들에 크게 연관되어 있다. 삼위일체는 우주의 모든 차원들에서 기능하고, 필사 사람은 유한 차원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삼위일체로써의 삼위일체에 대한 유한 개념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4.7 너희는 육체 속에 있는 한 필사자로서 너희의 개별적 계몽에 따라 그리고 너희 마음과 혼의 반응과의 조화 속에서 삼위일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삼위일체의 절대성을 매우 조금 알 수 있지만, 너희가 낙원천국을 향해 상승할 때 너희는, 비록 절대위는 아니지만, 최극위와 궁극위 삼위일체에 대한 계속적인 계시들과 예상치 못한 발견들 앞에 여러 차례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 5. 삼위일체의 기능

10:5.1 개인적 신(神)들은 속성들을 갖지만, 삼위일체가 속성들을 갖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신성한 존재들의 이 연합은 공의(公義) 관리, 전체성 태도, 합동 행동, 그리고 조화우주 총괄 등과 같은

Trinity mystery: three as one and in one, and one as two and acting for two.

The Trinity is so related to total universe affairs that it must be reckoned with in our attempts to explain the totality of any isolated cosmic event or personality relationship. The Trinity functions on all levels of the cosmos, and mortal man is limited to the finite level; therefore must man be content with a finite concept of the Trinity as the Trinity.

As a mortal in the flesh you should view the Trinity in accordance with your individual enlightenment and in harmony with the reactions of your mind and soul. You can know very little of the absoluteness of the Trinity, but as you ascend Paradiseward, you will many times experience astonishment at successive revelations and unexpected discoveries of Trinity supremacy and ultimacy, if not of absoluteness.

## 5. FUNCTIONS OF THE TRINITY

The personal Deities have attributes, but it is hardly consistent to speak of the Trinity as having attributes. This association of divine beings may more properly be regarded as having *functions*, such as justice administration, totality attitudes, co-

기능들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 기능들은 개인성 가치의 모든 살아있는 실체들에 관한 한, 실제적으로 최극, 궁극 그리고 (신(神)의 한계들 안에서) 절대적이다.

ordinate action, and cosmic overcontrol. These functions are actively supreme, ultimate, and (within the limits of Deity) absolute as far as all living realities of personality value are concerned.

10:5.2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기능들은 단순히 신성이라는 아버지의 외견적 자질 전체에, 아들과 영의 개인적 실재 안에 독특하게 있는 특화된 속성들을 더한 것이 아니다. 세 낙원천국 신(神)들의 삼위일체 연합은, 우주적 계시, 행동 그리고 관리를 위한 새로운 의미, 가치, 힘, 그리고 역량들의 진화, 결국 생겨남, 그리고 신(神)구현화를 가져온다. 살아있는 연합체들, 인간 가족들, 사회 집단들, 또는 낙원천국 삼위일체는 단순한 산술적 합계에 의해 증대되는 것이 아니다, 집단 잠재는 구성요소가 되는 개별존재들의 속성들에 대한 단순한 합계를 항상 훨씬 뛰어넘는다.

The functions of the Paradise Trinity are not simply the sum of the Father's apparent endowment of divinity plus those specialized attributes that are unique in the personal existence of the Son and the Spirit. The Trinity associatio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results in the evolution, eventuation, and deitization of new meanings, values, powers, and capacities for universal revelation, action, and administration. Living associations, human families, social groups, or the Paradise Trinity are not augmented by mere arithmetical summation. The group potential is always far in excess of the simple sum of the attributes of the component individuals.

10:5.3 삼위일체는 그 삼위일체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체 우주를 향함에 따라서 독특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기능들은 삼위일체의 우주 태도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가장 잘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태도들은 동시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고립된 상황이나 결과와 관계하여 다중적일 수 있다:

The Trinity maintains a unique attitude as the Trinity towards the entire univers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the functions of the Trinity can be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universe attitudes of the Trinity. Such attitudes are simultaneous and may be multiple concerning any isolated situation or event:

10:5.4 1. **유한자를 향한 태도.** 삼위일체의 최대 자아-제한은 유한세계를 향한 태도이다. 삼위일체는 개인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배타적

1. *Attitude toward the Finite.* The maximum self-limitation of the Trinity is its attitude toward the finite. The Trinity is not a person, nor is the

개인성구현인 최극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최극자는 유한 창조체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삼위일체의 힘-개인성 초점화구현에 가장 접근되어 있다. 따라서 유한세계와 관계하는 삼위일체는 때로 최극위의 삼위일체로 이야기된다.

Supreme Being an exclusive personalization of the Trinity, but the Supreme is the nearest approach to a power-personality focalization of the Trinity which can be comprehended by finite creatures. Hence the Trinity in relation to the finite is sometimes spoken of as the Trinity of Supremacy.

10:5.5 2. 아(亞)절대를 향한 태도. 낙원천국 삼위일체는 유한보다는 높지만 절대보다는 낮은 차원들과 관련을 가지며, 이 관계는 때로 궁극위의 삼위일체라고 일컬어진다. 궁극자뿐만 아니라 최극자도 낙원천국 삼위일체를 전적으로 대표하지는 않지만, 자격이 갖추어지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들 각각의 차원들에 대하여, 그 각각은 체험적-힘 발달의 전(前)개인적 시대들 동안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2. *Attitude toward the Absonite.* The Paradise Trinity has regard for those levels of existence which are more than finite but less than absolute, and this relationship is sometimes denominated the Trinity of Ultimacy. Neither the Ultimate nor the Supreme are wholly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but in a qualified sense and to their respective levels, each seems to represent the Trinity during the prepersonal eras of experiential-power development.

10:5.6 3.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절대적 태도는 절대 실재(實在)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 신(神)의 행동 안에서 극에 달한다.

3. *The Absolute Attitude* of the Paradise Trinity is in relation to absolute existences and culminates in the action of total Deity.

10:5.7 삼위일체 무한자는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모든 삼원일체(三元一體) 관계들에 대한 합동 행동-비(非)신(神)화 된 것뿐만 아니라 신(神)화 된 것-을 포함하며 그러므로 개인성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다. 삼위일체를 무한으로서 깊이 사색함에 있어서, 일곱 삼원일체(三元一體)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납득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어떤 모순들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The Trinity Infinite involves the coordinate action of all triunity relationship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 undeified as well as deified - - and hence is very difficult for personalities to grasp. In the contemplation of the Trinity as infinite, do not ignore the seven triunities; thereby certain difficulties of understanding may be avoided, and certain paradoxes may be partially resolved.

10:5.8 그러나 나는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총만한 진리와 영원한 의의(意義)  
그리고 무한 완전의 세 존재들의  
결코-끝남이 없는 상호 연합의  
본성을, 내가 제한된 인간 마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But I do not command language  
which would enable me to convey to  
the limited human mind the full truth  
and the eternal significan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nature of the  
never-ending interassociation of the  
three beings of infinite perfection.

## 6. 삼위일체 고정아들

## 6.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10:6.1 모든 법칙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기원되며; 그는  
**법칙이다.** 영적 법칙에 대한 관리는  
둘째근원이며 중심에게 부여되어 있다.  
법의 계시, 신성한 법령들에 대한  
공표와 해석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기능이다. 법칙의 적용,  
공의(公義)는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지역  
안에서 일어나며 특정 삼위일체  
아들들에 의해 수행된다.

All law takes origin in the First  
Source and Center; *he is law*. The  
administration of spiritual law inheres  
in the Second Source and Center. The  
revelation of law, the promulg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divine  
statutes, is the function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application of  
law, justice, falls within the provinc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is carried  
out by certain Sons of the Trinity.

10:6.2 **공의(公義)**는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우주적 주권 안에 선천적이지만,  
선함, 자비 그리고 진리는, 그 신(神)  
결합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신성한  
개인성들의 우주 사명활동이다.  
공의(公義)는 아버지나 아들 또는 영의  
태도가 아니다. 공의(公義)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사명활동에  
대한 이들 개인성들의 삼위일체  
태도이다. 낙원천국 신(神)들 중 아무도  
공의(公義)의 관리를 돌보지  
않는다. 공의(公義)는 결코 개인적  
태도가 아니며; 그것은 항상  
복수(複數) 기능이다.

*Justice* is inherent in the universal  
sovereignty of the Paradise Trinity,  
but goodness, mercy, and truth are the  
universe ministry of the divine  
personalities, whose Deity union  
constitutes the Trinity. Justice is not  
the attitude of the Father, the Son, or  
the Spirit. Justice is the Trinity  
attitude of these personalities of love,  
mercy, and ministry. No one of the  
Paradise Deities fosters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stice is  
never a personal attitude; it is always  
a plural function.

10:6.3 3 증거, 공평성(자비로 조화된  
공의)의 기초는,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Evidence*, the basis of fairness (justice  
in harmony with mercy), is supplied

개인성들, 모든 창조지능 존재들의 모든 영역들과 그리고 마음들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대표자에 의해 제공된다.

10:6.4 4 심판, 무한 영의 개인성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따른 공의(公義)의 최종 적용은, 삼위일체 고정아들들, 결합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의 삼위일체 본성을 함께하는 존재들의 업무이다.

10:6.5 삼위일체 아들들의 이 집단은 다음의 개인성들을 포용한다:

1. 삼위일체화 최극위의 비밀.
2. 영원으로 늘계신이.
3. 옛적으로 늘계신이.
4. 완전으로 늘계신이.
5. 최근으로 늘계신이.
6. 결합으로 늘계신이.
7. 충심으로 늘계신이.
8. 지혜의 완전자.
9. 신성한 조언자.
10. 우주 검열자.

10:6.6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기능하는 세 낙원천국 신(神)들의 자녀들이며, 내가 이 집단의 10 번째 계층에 속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주 검열자이다. 이들 계층들은 우주적 감각에서는 삼위일체의 태도의 대표자는 아니다; 그들은 집행적 심판—공의—의 권역들 안에서만 신(神)의 이 집단적

by the personaliti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the conjoint representative of the Father and the Son to all realms and to the minds of the intelligent beings of all creation.

*Judgment*, the final application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s the work of the Stationary Sons of the Trinity, beings partaking of the Trinity nature of the united Father, Son, and Spirit.

This group of Trinity Sons embraces the following personalities:

1. Trinitized Secrets of Supremacy.
2. Eternals of Days.
3. Ancients of Days.
4. Perfections of Days.
5. Recents of Days.
6. Unions of Days.
7. Faithfuls of Days.
8. Perfectors of Wisdom.
9. Divine Counselors.
10. Universal Censors.

We are the children of the three Paradise Deities functioning as the Trinity, for I chance to belong to the tenth order of this group, the Universal Censors. These order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attitude of the Trinity in a universal sense; they represent this collective attitude of Deity only in the domains of

태도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이  
배정받은 엄밀한 업무를 위하여  
삼위일체에 의해 특별히  
예정되었으며, 그들이 이것을  
위하여 개인성구현된 그 기능들  
안에서만 삼위일체를 나타낸다.

10:6.7 옛적으로 늘계신이와 그들의 삼위일체-  
기원 연합체들은 일곱  
초우주들에게 최극 공평성의 정당한  
심판을 나누어준다. 중앙우주  
안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 거기에서  
공평함은 완전 안에서 스스로-  
명백하며 그리고 하보나 완전은  
부조화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

10:6.8 공의(公義)는 정의로움에 대한  
집단적 생각이다; 자비는 그것의  
개인적 표현이다. 자비는 사랑의  
태도이며; 정확은 법 실행의  
특징이다; 신성한 심판은 공정성의  
마음이며, 삼위일체의 공의(公義)에  
항상 순응하고, 하느님의 신성한  
사랑을 항상 성취한다. 온전하게  
인식되고 완벽하게 납득되었을 때,  
삼위일체의 의로운 공의(公義)와 우주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은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은 신성한 공의(公義)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납득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안에서,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처럼, 시간의  
체험적 우주에서의 사랑과 법칙의  
사명활동을 합동하기 위하여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개인성들이  
조절되고 있다.

executive judgment -- justice. They  
were specifically designed by the  
Trinity for the precise work to which  
they are assigned, and they represent  
the Trinity only in those functions for  
which they were personalized.

The Ancients of Days and their  
Trinity-origin associates mete out the  
just judgment of supreme fairness to  
the seven superuniverses. In the  
central universe such functions exist  
in theory only; there fairness is self-  
evident in perfection, and Havona  
perfection precludes all possibility of  
disharmony.

Justice is the collective thought of  
righteousness; mercy is its personal  
expression. Mercy is the attitude of  
love; precision characterizes the  
operation of law; divine judgment is  
the soul of fairness, ever conforming  
to the justice of the Trinity, ever  
fulfilling the divine love of God.  
When fully perceived and completely  
understood, the righteous justice of  
the Trinity and the merciful love of  
the Universal Father are coincident.  
But man has no such full  
understanding of divine justice. Thus  
in the Trinity, as man would view it,  
the personalities of Father, Son, and  
Spirit are adjusted to co-ordinate  
ministry of love and law in the  
experiential universes of time.

## 7. 최극위의 총괄

## 7.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 10:7.1 1 신(神)의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개인은 서로 동등하고, 그들은 하나이다. “우리 주님 하느님은 한 하느님이다.” 영원한 신(神)들의 신성한 삼위일체 안에는 목적의 완전성과 집행의 하나 됨이 존재한다. 아버지, 아들과 그리고 공동행위자는 정말로 그리고 신성하게 하나이다. 진리 가운데에는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어떤 하느님도 없다.”
- 10:7.2 유한 차원에서 필사자들에게 사물들이 나타날 때, 낙원천국 삼위일체는, 최극존재처럼, 오직 전체—전체 행성, 전체 우주, 전체 초우주, 전체 거대우주—와 관련된다. 이 전체성 태도는 삼위일체가 신(神)의 전체이고 그리고 많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존재한다.
- 10:7.3 최극존재는 유한 우주들 안에서 기능하는 삼위일체보다는 낮은 그리고 어딘가 다른 어떤 존재이지만; 일정한 한계들 안에서 그리고 미완성 힘-개인성구현의 현재 시대 동안, 이 진화 신(神)은 최극위의 삼위일체의 태도를 반영하려고 나타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최극존재와는 개인적으로 기능하지 않지만, 현재 우주 시대 동안 그들은 삼위일체로서 그와 함께 협동한다. 우리는 그들이 궁극자에 대하여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납득한다. 우리는 그가 최종적으로 진화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낙원천국 신(神)들과 최극자 하느님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대하여
-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rsons of Deity are equal to each other, and they are one. "The Lord our God is one God." There is perfection of purpose and oneness of execution in the divine Trinity of eternal Deities. The Father, the Son, and the Conjoint Actor are truly and divinely one. Of a truth it is written: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and beside me there is no God."
- As things appear to the mortal on the finite level, the Paradise Trinity, like the Supreme Being, is concerned only with the total -- total planet, total universe, total superuniverse, total grand universe. This totality attitude exists because the Trinity is the total of Deity and for many other reasons.
- The Supreme Being is something less and something other than the Trinity functioning in the finite universes; but within certain limits and during the present era of incomplete power-personalization, this evolutionary Deity does appear to reflect the attitude of the Trinity of Supremacy. The Father, Son, and Spirit do not personally function with the Supreme Being, but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they collaborate with him as the Trinity. We understand that they sustain a similar relationship to the Ultimate. We often conjecture as to what will be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dise Deities and God the Supreme when he has finally evolved, but we do not really know.

종종 추측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한다.

10:7.4 우리는 전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최극위의 총괄을 발견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 예측 불가능성은, 틀림없이 최극자의 미완성의 표식이자 그리고 낙원천국 삼위일체에 대한 유한 반응의 미완성에 속하는, 어떤 발전의 미완성에 의하여 특징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We do not find the overcontrol of Supremacy to be wholly predictable. Furthermore, this unpredictability appears to be characterized by a certain developmental incompleteness, undoubtedly an earmark of the incompleteness of the Supreme and of the incompleteness of finite reaction to the Paradise Trinity.

10:7.5 필사자 마음은 수많은 것들—비극적인 물리적 사건들, 무시무시한 우연한 현상들, 무서운 재난들, 고통스러운 질병들,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들—을 즉각 생각하고는 그러한 재앙이 최극존재의 이 있음직한 기능의 알려지지 않은 책략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정말로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어렵고도 다소 신비스러운 상황들이 **항상** 우주들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 일어남을 관찰한다. 실재의 환경들과 삶의 설명할 수 없는 변천들은 모두 최극자의 기능과 삼위일체의 총괄에 의해, 높은 가치의 의미심장한 원형틀 속으로 서로 엮어지는 것 같다.

The mortal mind can immediately think of a thousand and one things -- catastrophic physical events, appalling accidents, horrific disasters, painful illnesses, and world-wide scourges -- and ask whether such visitations are correlated in the unknown maneuvering of this probable functioning of the Supreme Being. Frankly, we do not know; we are not really sure. But we do observe that, as time passes, all these difficult and more or less mysterious situations *always* work out for the welfare and progress of the universes. It may be that the circumstances of existence and the inexplicable vicissitudes of living are all interwoven into a meaningful pattern of high value by the function of the Supreme and the overcontrol of the Trinity.

10:7.6 하느님의 한 아들로서 너희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활동들 안에서 사랑의 개인적 태도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우주 활동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 있는 개별

As a son of God you can discern the personal attitude of love in all the acts of God the Father. But you will not always be able to understand how many of the universe acts of the Paradise Trinity redound to the good

필사자의 선(善)을 초래하는지를 항상 납득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의 진보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활동들은 전적으로 의미심장하고 신중하게 계시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시간의 창조체들에게 항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 8. 유한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10:8.1 낙원천국 삼위일체와 관계하는 많은 진리들과 사실들은 유한을 초월하는 기능을 인식함으로써만 부분적으로라도 이해될 수 있다.

10:8.2 궁극위 삼위일체의 기능들을 논의하는 일은 권장할만하지 못하겠지만, 궁극자 하느님이 초월자들에 의해 이해되는 삼위일체 현시라는 사실은 밝혀도 된다. 우리는 주(主)우주의 통합이 궁극자의 결국 생겨나고 있는 활동이며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도 일정한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아(亞)절대 총괄의 위상에 대한 반영이라고 믿으려한다. 궁극자는, 단지 최극자가 유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부분적으로 그렇게 대변한다는 감각에서는, 아(亞)절대와의 관계에서 분별화된 삼위일체 현시이다.

10:8.3 우주 아버지, 영원 아들, 그리고 무한 영은, 어떤 감각에 있어서는, 전체 신(神)의 구성요소 개인성들이다. 낙원천국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들의 결합과 삼위일체의 절대적 기능은 전체 신(神)의 기능과 동등하다.

of the individual mortal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In the progress of eternity the acts of the Trinity will be revealed as altogether meaningful and considerate, but they do not always so appear to the creatures of time.

## 8. THE TRINITY BEYOND THE FINITE

Many truths and facts pertaining to the Paradise Trinity can only be even partially comprehended by recognizing a function that transcends the finite.

It would be inadvisable to discuss the functions of the Trinity of Ultimacy, but it may be disclosed that God the Ultimate is the Trinity manifestation comprehended by the Transcendentals. We are inclined to the belief that the unification of the master universe is the eventuating act of the Ultimate and is probably reflective of certain, but not all, phases of the absonite overcontrol of the Paradise Trinity. The Ultimate is a qualified manifestation of the Trinity in relation to the absonite only in the sense that the Supreme thus partially represents the Trinity in relation to the finite.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re, in a certain sense, the constituent personalities of total Deity. Their union in the Paradise Trinity and the absolute function of the Trinity

그리고 그러한 신(神)의 완성은 유한과 아(亞)절대 둘 모두를 초월한다.

equivalate to the function of total Deity. And such completion of Deity transcends both the finite and the absonite.

10:8.4 낙원천국 신(神)들 중 어느 한 개인도 실제적으로 전체 신(神) 잠재를 채우지 못하는 반면, 셋 전체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한다. 세 무한 개인들은 전체 신(神)-신(神) 절대자—의 전(前)개인적 그리고 존재적 잠재를 활성화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숫자의 존재들인 것처럼 보인다.

While no single person of the Paradise Deities actually fills all Deity potential, collectively all three do. Three infinite persons seem to be the minimum number of beings required to activate the prepersonal and existential potential of total Deity -- the Deity Absolute.

10:8.5 우리는 우주 아버지, 영원 아들, 그리고 무한 영을 개인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는 신(神) 절대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 나는 신(神) 절대자를 존경하고 공경한다.

We know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as persons, but I do not personally know the Deity Absolute. I love and worship God the Father; I respect and honor the Deity Absolute.

10:8.6 나는 영원 안에서 최종자가 결국에는 신(神) 절대자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어떤 존재들의 집단이 가르쳤던 한 우주에 머문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최종자의 미래를 싸 숨기는 이런 신비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I once sojourned in a universe where a certain group of beings taught that the finaliters, in eternity, were eventually to become the children of the Deity Absolute. But I am unwilling to accept this solution of the mystery which enshrouds the future of the finaliters.

10:8.7 최종의 무리단은, 특히, 하느님의 뜻에 맞는 모든 것 안에서 완전을 달성한 시간과 공간의 그 필사자들을 포용한다. 창조체들로서 그리고 창조체 능력의 한계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을 충분히 그리고 참되게 안다. 하느님을 모든 창조체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발견하면, 이 최종자는 언젠가 반드시 초(超)유한 아버지를 향한 탐구를 시작하지

The Corps of the Finality embrace, among others, those mortals of time and space who have attained perfection in all that pertains to the will of God. As creatures and within the limits of creature capacity they fully and truly know God. Having thus found God as the Father of all creatures, these finaliters must sometime begin the quest for the superfinite Father. But this quest involves a grasp of the absonite nature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탐구는 낙원천국 아버지의 궁극적 속성들과 성격의 아(亞)절대 본성파악을 포함한다. 영원이 그러한 달성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드러내겠지만, 우리는 만일 그 최종자가 이 신성의 궁극을 파악하더라도 그들이 아마 절대 신(神)의 초(超)궁극 차원들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10:8.8 최종자가 신(神) 절대자를 부분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영원들의 영원 안에는 우주 절대자에 대한 문제가 상층하는 그리고 진보하는 최종자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흥미를 돋우고 어리둥절하게 하며 당황하게 하고 도전을 걸 것인데, 이는 우주 절대자의 조화우주 관계들의 불가해성(不可解性)이 물질적 우주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 관리가 계속 확대됨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경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10:8.9 오직 무한만이 아버지-무한자를 드러낼 수 있다.

10:8.10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계신이로부터 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우주 검열자에 의해 후원되었음]

of the ultimate attributes and character of the Paradise Father. Eternity will disclose whether such an attainment is possible, but we are convinced, even if the finaliters do grasp this ultimate of divinity, they will probably be unable to attain the superultimate levels of absolute Deity.

It may be possible that the finaliters will partially attain the Deity Absolute, but even if they should, still in the eternity of eternities the problem of the Universal Absolute will continue to intrigue, mystify, baffle, and challenge the ascending and progressing finaliters, for we perceive that the unfathomability of the cosmic relationships of the Universal Absolute will tend to grow in proportions as the material universes and their spiritual administration continue to expand.

Only infinity can disclose the Father-Infinite.

Sponsored by a Universal Censor acting by authority from the Ancients of Days resident on Uversa.